



올 초 광주 북구에서는 중증장애에 시달리던 아들이 뇌사 상태에 빠지자 20여 년 넘도록 아들을 돌봐온 아버지가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떼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오랜 세월 장애인 자녀를 간호하느라 지친 아버지의 극단적인 선택은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주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장애 가족들은 장애인을 가족으로 댈다는 이유로 경제, 정신,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하며 개인의 삶을 포기한 채 장애인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장애인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보급자리 역할해 온 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구 (사)사람모아가족복지회·회장 서미정·이하 가족복지회)가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10월 자체장애 3급인 서미정 회장을 비롯해 장애를 가진 활동가들이 주축이 돼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을 향상시키자고 의기를 투합했던 게 첫 출발이었다.

현재 가족복지회에는 장애아동을 키우는 장애인 부부부터 비장애인 가족까지 다양한 가족 250여 명이 함께 어울려 서로 의지하고 있다.

가족복지회가 하는 주된 일은 가족 기능 회복과 역할 강화,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과 장애가족들을 위한 상담은 물론 독서모임 등 각종 자조 모임을 통해 취미활동도 함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독서모임을 이끌고 있는 김현명씨 역시 자체장애인으로서 지난



### 광주 장애인가족복지회 개소 1돌

### 가족 상담·독서 모임 등 활발한 봉사

해 독서지도사자격증을 취득해 모임을 만들었다. 또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부부 상담, 자녀·형제 프로그램, 가족역할 훈련, 가족 캠프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도 '가족이 함께하는 가을 문화체험 및 나들이'를 진행, 90여 명

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 회원들이 지난 10월 영광군 백수읍 근로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 '사랑모아 가족 나들이 겸 체육대회'에서 참가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 제공〉

의 가족들이 교장 선운사를 다녀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낮(오전 10시~오후 3시30분)시간 동안 장애인을 보호하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로서 기능도 함께하고 있다. 1~2급 사회복지사, 성교육 강사 등이 시정보기, 요리실습, 은행업무 보기 등 일상생활 적응 훈련을 비롯해 성교육, 영어·미술·한글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신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정영배(38)씨가 영어 수업을 진행하는 등 자원봉사자들의 도움도 한 몫하고 있다.

영어수업을 1년 가깝게 받아 온 윤진호(41·자체장애 3급)씨는 "알과벳부터 시작해 지금은 관계대명사, 분사가 들어있는 문장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늘었다"면서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없어진 것 같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다"고 말했다.

가족복지회 서미정 회장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당사자인 장애인에만 치중돼 있어 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면서 "이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 가족의 문제를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종교 칼럼



최광선

우주만상을 살펴보면 두 가지 상 대되는 현상이 항상 조화를 이루면서 존재하고 있다. 음과 양, 즉 밝음과 어둠, 생과 사, 행복과 불행, 정의와 불의 등 우리의 마음도 가만히 살펴보면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상존하면서 서로 모습을 드러내려 한다.

매사에 중심과 중도가 갖추어진 불심(佛心)의 주인심경과,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릇된 중생심(衆生心)의 머슴심경이 그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일생을 통해 복되고 편안한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그것은 주인과 머슴의 두 마음 사이에서 주인의 마음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맹자는 "사람이 집에서 키우는 닭이나 개가 달아나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찾기에 급급한데 자신의 마음이 달아난 것은 찾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비유로 주인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어리석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도심(道心)과 불심(佛心)이 중심이 되는 주인의 마음으로 의어가 위해서는 수많은 마장(魔障)의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한다. "법고마성(法高魔盛)"이라는 말이 있다. 마음에 철이 들고, 심력이 깊어

### 주인의 마음

지려 함에 마장 역시 성해진다라는 뜻이다.

새우가 자라서 왕새우가 될 때 껍질을 벗는 과정이 있다. 이때 새우의 몸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어찌나 멀리 퍼지는지 10리 밖에 있는 물고기를 조차 먹이를 찾아 몰려온다고 한다. 즉 이러한 생사의 시험을 무사히 넘긴 새우만이 온전히 껍질을 벗고 왕새우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 정(正)과 사(邪), 시(是)와 비(非), 법(法)과 마(魔)의 결단을 해야 할 시험을 잘 통과하려면 마음의 끈이 잘 이어져 있어야 한다. 뒤틀리고 울바른 곳에 마음의 끈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수없이 다가오는 인생의 경계 앞에서 올바른 결단을 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진리에 마음을 체하고 살고, 마음을 연하며 사는 공부길이라야 어떠한 순간들이 다가와도 주인의 마음을 선택하고 무량한 복혜를 장만해 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 때의 괴로움을 범 있게 잘 참으면 영생의 괴로움을 면하리라"라는 원불교 정산종사의 말씀처럼 한결같이 진리, 스승과 마음의 끈을 잘 이어서 인생의 어떠한 옥심경계 앞에서도 주인의 마음을 잘 지켜 나가는 주인공이 되어 일생과 영생을 복되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원불교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교무

## 재물·여색·명리 허물 벗고 깨달음의 길로

##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로 상향

### 조계종, 순천 송광사 등 100개 선원서 동안거

외부출입을 삼가 채 집중적으로 참선수행하는 불교계 동안거(冬安居)가 12일 시작됐다.

순천 송광사, 장성 백양사 총림선원 등 전국 100여 개 선원에서 2천 200여 명의 스님이 참가한 가운데 음력 10월 보름인 이날부터 석달 동안(2009년 2월 9일까지) 동안거가 진행된다.

안거를 출가 수행자들이 일정 기간 한곳에 모여 외부와의 출입을 끊고 수행정진하는 것으로 국내 불교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스님들의 단체 수행 문화다.

통결기 3개월(음력 10월 15일부터 이듬해 1월 15일까지) 동안의 수행은 동안거, 하절기 3개월(음력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동안하는 수행은

하안거(夏安居)라고 한다. 안거 기간 동안 수행자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10시 취침하기 전까지 하루 10시간 이상 수행정진을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 일도 금지된다.

지난 11일 송광사, 백양사 등 각 사찰별로 방장 스님들이 무자한 동안거에 참가한 수행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결계 법어를 내렸다.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은 "재물과 여색, 명리는 독사와 같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이 세 가지 나쁜 허물을 버리지 않고 공부한다는 것은 머리에 기름통을 이고 불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이번 동안거 결계 대중은 이 세 가지 나쁜 일을 안 하리라 맹세하고 공부하기를 바란



〈보성 스님〉 〈지종 스님〉

다"고 전했다. 백양사 방장 지종스님은 "세간 중생들이 어둠속에서 이진투구(泥田鬪狗)를 일삼고 있으니 수행자들이 밝은 눈을 갖추고 대로행(大路行)을 하여 세간의 어둠을 밝혀야 한다"면서 "이번 동안거에는 내가 이 세상에 없다고 여기고, 화두라는 보검을 가슴에 안고 화두를 타파해 크게 웃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정부는 지난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2%에서 3%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0년부터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의 공공기관에서도 장애

인 의무고용률을 역시 3%로 올리게 됐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행정보조원 등)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했다.

중증 장애인 1명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경증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연희뉴스

### 수경스님 초청 강연회

### 광주불교환경연대 29일

광주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범일스님)는 오는 29일 오후 3시 광주 자비신행회 강당에서 수경스님 초청강연회를 개최한다. 수경스님은 지리산 노고단에서 계

룡산 중악단까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문규현 신부와 함께 오체투지 1차 순례를 진행한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2시간 가량 진행될 이날 강연회에서는 스님의 법문과 함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활동, 오체투지 순례모습의 동영상 상영과, 문화공연 등도 진행된다. /이은미기자 emlee@

### 원불교 100년 기념 성업회 발족

7년 앞으로 다가온 원불교 개교 100년을 준비하는 '원불교100년기념 성업회'가 발족했다.

원불교 중앙총부에 따르면 교단은 개교 100년인 2015년에 대대적으로 치러지는 행사를 위해 최근 최고 의결기구인 수위단회를 통해 '100년 기념 성업회'를 조직하기로 하고 최근 전북 익산시 원불교중앙총부기념관에서 출범했다.

이를 위해 원불교 100년기념 성업회는 경산종법사를 총재로 하고 효산 조정근 교무(출가), 경산 김범은 교도

(재가)를 회장으로 추대하고 사무총장에 김경희 교무와 각 부과위원 120명을 선임했다.

'100년 기념성업회'는 정신개혁운동과 교단혁신사업을 전개하고 문화, 학술, 편찬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추진사업은 ▲정신개혁운동 전개 ▲교과대불공 전개 ▲일원교법 세계화 ▲결핵백년대를 향한 교단혁신사업 전개 ▲기념대회 및 성지장엄 ▲문화·학술·편찬 등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wangju Ildeung Academy. It features a graduation scene with students in caps and gowns. The main text reads: '광주일등학원이 수험생 여러분의 대박을 기원합니다.' (Kwangju Ildeung Academy wishes you a big win, exam takers!). Below this, it says '— 광주일등학원 교직원 일동' (All staff of Kwangju Ildeung Academy). At the bottom, there is a small line of text: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Advertisement for Kimyoung University. The main headline is '2009년 편입학성 대입편입' (2009 Admission and Transfer). It mentions '그동안 편입합격생 12만 천여명을 배출한 "김영대학교편입"' (Having produced over 120,000 successful transfer students, Kimyoung University's admission). The text also says '최종마무리반 모집 개강 12월 1일 첫진도' (Final finishing class recruitment, starting on Dec 1st). On the right, it says '김영 대학편입학원' (Kimyoung University Admission Center). At the bottom, there is a small line of text: '전국 각 대학 편입합격생 12만 천여명 배출한 "김영대학교편입"'